이 세상만사가 부처님의 법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 17면에서 계속

에서 그냥 깜빡 마음이 죽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아이구, 이젠 죽었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반면에 그것이 그대로 입력이 됩니다. 체내의 모든 의식들에게 하나로 그냥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한 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잘못되는 것도 입력이 돼서 잘못되는 거, 잘되는 것도 입력이 돼서 잘되는 겁니다. 입력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컴퓨터는 물론 사람이 넣는 것만 입력이 되지만 이 자동적인 심성의 컴퓨터는 아주 여러분의 세세한 것까지도, 큰 거나 작은 거나 세세한 것까지도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현실에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지은 거는, 알고 입력이 된 것은 현실에 알게끔 나오고, 모르고 입력이 된 것은 모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 과정에서 천차만별의 이 마음 도리가 이렇게 귀중하고 이렇게 엄청난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이거는 과거에 어떻게 살았다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과거도 현실이요, 미래도 현실입니다. 영원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내가 일러 드리는 것은, 그렇게 과거에 살 때 입력이 된 것이 현실에 나오는 거니까 현실에 나오는 것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자기가 땅을 걸어가다 엎드러지면 땅을 짚고 일어나듯이, "자기한테서 나오는 것을 자기한테다가 맡겨 놓고, 잘된 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잘되게 돌리는 것도 거기다.' 하고 맡겨 놓고 지켜보고 체험해라. 이것이 본래 참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거기다 맡겨 놓고 입력을 시키면 과거에 입력이 됐던 것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면서, 넣으면 넣는 대로 자동적으로 그릇이 비고 또 넣으면 또 비고, 이렇게 넣으면 넣는 대로 그릇이 비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이런 쉬운 방법을,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길을, 아주 손쉽게 여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한생각이 모자라서 내다볼 줄 모르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먹어 보지 못해서 맛을 모르고 듣질 못해서, 생각이 나질 않아서 항상 독 속에서 내 마음이 빠져나오지 못한대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몸뚱이가 독이라면 독 속에서 나와야 내 몸뚱이 독을 마음대로 굴릴 수가 있는 건데, 당신네들 이 몸이 항아리라면 항아리 속에서 나와야 그 자기의 몸뚱이 항아리를 마음대로 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항아리 속에 들어 있으면서 어떻게 항아리를 굴린단 말입니까?

이 마음공부를 열심히 하면 팔만대장경을 모두 다 읽어 보지 않더라도 금강경이나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이런 걸 보면 그냥 단번에 그 뜻이 들어오는 겁니다, 단번에! 전자에 못 알아듣고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이러던 것이 그냥 단번에 '아, 저거는 무슨 뜻이고 저거는 무슨 말이고' 이런 것이 아주 단번에 옵니다. 이 세상만사가 부처님의 법 아닌 게 하나도 없으니깐요. 우리들의 법을 빼 놓고 부처님 법이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마음이라는 게 쥘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빛깔도 없지만 이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광대하고 무변한 것을, 한생각이면 두루 할 수 있는 것을…. 한생각에 바늘구멍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마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뺏어 갑니까, 누가 갖다 줍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이 세상을 자유스럽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이해가 갑니까?

대중 예.

큰스님 이해가 가셔야 될 겁니다. 여직껏 그래도 마음공부라고 이끌어왔고 여러분과 같이 한마음이 돼서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내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의 마음이 전깃줄이라면 내 마음도 전깃줄이 돼서 한 전깃줄이 내 전깃줄에 와서 닿으면 불이 밝게 켜지는 것뿐이라고. 그래서 이 전깃줄도 아니요, 저 전깃줄도 아니다. 단, 마음과 마음이 전깃줄과 전깃줄이 맞닿듯이, 마음과 마음이 닿으면 밝게 불이 들어와서 한 가족이 다 밝게 살 수가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문제든지, 어떤 가정도 그렇고 넓게 생각한다면 어떤 지역도 국가도 다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여기 이 지역이 공동묘지였습니다. 공동묘진데 공동묘지의 그 시체들을 각자 이렇게 태운 게 아니라 그냥 한데 몰아서 갖다가 뿌려 버렸단 말입니다, 여기 공동묘지로. 그러니까 사람이 해를 당할 수밖에. 도둑이 생기고 사람이 다치고 한 사람은 죽어 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처음 여기에다 절을 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골이 하나하나가 쭉 그냥 물밀듯이 밀어닥쳤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옳겠습니까? 여러분이 공부한 대로 어디 대답해 보십시오. 그걸 어떻게 해야만이 없앨 수 있겠습니까? 예?

신도1(남) 범소유상(凡所有相) 개시허망(皆是虛妄)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즉견여래(卽見如來).

큰스님 말로만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하하. 이 마음속의 진실과 또 극치적인 나라는 게 없고 상대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여래가 되죠. 이 여래, 이 자체는 어떠한 부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모두가 돌아가는 자체가 그대로 여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이 마음공부 하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아, 둘이 아닌데, 뭐.' 체가 없는 거니까, 나도 마음이 체가 없는 것이요, 상대도 체가 없는 것이니까, 모든 것을 한마음으로 입력을 한다면 모두 두드러지지 않는다. 마음속에 이 세상을 다 넣어도 그릇이 작지 않고 두드러지지도 않는다. 꺼내도 줄지도 않고. 아시겠죠?

그러한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닌데 방편으로써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한데 떨어지지 않는다면 법이 될 것이고, 내가 말을 하는데도 한데 떨어트리지 않고 말을 한다면 이것도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듣는 자와 하는 자가 항상 둘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한데 합쳐져서 밝아질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네가 했다, 내가 했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한 사이도 없고 내가 말한 사이도 없고, 나도 없고 아뇩다라삼먁삼보리도 없고. 그 원인이 무슨 까닭인가 하고 물었을 뿐입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으로써 그만하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질문자1(여) 스님, 간단하게 제가 무와 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 사람들이, 전체가, 무와 유가 같이 이렇게 산다는 걸 근래에 와서 더 절실하게 느끼거든요. 제사(祭祀)라든가 이런 걸 지내는데 집안 전체 싸움이 난다거나 이랬을 때에, 그 무의 세계에서 요런 문제를 만든다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숙모님이 추석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 돌아가신 이후로 산소를 갔다 오다가요, 그 이웃집에서 삽을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도망가고 뒤에서 삽을 들고 도망간 사람을 잡으려고 그러고, 연속 연속 낫을 들고 들어가고 몽둥이 들고 쫓아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무의 세계에서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이렇게 알게 돼 가지고 생각을 해 보니까 전체가 무와 유가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큰스님 그런데 무도 아니요, 유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신세계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세계에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발생이 되고 가라앉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齋)를 지내거나 천도를 시키거나 하더라도 그게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공부를 하면서 그것이 부러지지 않게 하느라고 천천히 갔던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저 찹쌀가루 전병 부쳐서 세 조각 아니면 일곱 조각, 일곱 조각 아니면 아홉 조각, 열두 조각 이렇게 해 놓고…. 일체 부처님의 조상이나 이 중생들의 조상이나 따로 없으니까 모두가 한 조상, 한마음의 조상으로서 일체 영령들에게 다 할 수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게. 표시! 저 불 켜 놓고 향 켜 놓고 물 한 그릇 떠 놓고 그거면 족합니다.

그래서 이 영령들이 상을 차려 놓으면 상 차려 놓았다는 스님네들의 마음부터 벌써 캐봅니다. 상 차려 놓았다는 생각을 벌써 영령들이 알거든요. 그 상 차려 놓은 것만 알게 된다면 영령들이 어떻게 천도가 됩니까? 먹을 생각만 하겠지. 그러니까 우주 전체 그 한 티끌만도 못한 우주를 한꺼번에 거기다 제시한다면, 우주 삼세를 다 제시한다면, 문을 열어 준다면 그건 저절로 천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천도가 됐는데 왜 또 지내느냐 이러겠죠? 그거는 죽어도 마음들은 체가 없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 꽉 찰 수도 있고 천도가 됐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자식들이 은혜를, 부모의 묵은 빚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하는 것도 되고 둘째는, 그 밑의 자식을 기르는데 제도를 하기 위해서도 한다 이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 은혜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방편을 쓰더라도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방편을 써서 그 죽은 영령들도 산 사람들의 영령들도 둘이 아닌 까닭에 그렇다는 사실을 모두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님들이 돈만 받고선 상을 안 차려 줘. 이런 데가 어딨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상 차려 주고 목탁이나 두들기는 데로 가야지 별수 없죠.

현실에 나오는 것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자기한테서 나오는 것 자기한테다 맡겨 놓고, 지켜보고, 체험하라.
이것이 본래 참선이다

질문자1(여)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제사를 양쪽 집에서 지내거든요. 큰집, 작은집에서. 그래서 저는 요 근래 제 마음자리에다 제사를 지내고는 제사 지내러 두 집에 다 안 갑니다. 그냥 내 마음자리에 전생이 있다면….

큰스님 이거 봐요. 좀 사람이 쥐락 펴락이 있어야지. 바늘을 끼었다 뺐다 끼었다 뺐다, 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해야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지, 이게 쥐었다 폈다 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사람이 못 돼.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에 가더라도 마음으로써 그렇게 하면 아무리 큰집에서 그렇게 차렸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당신은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모두 응해서 따라 주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 영령들도 좋고, 이게 다 좋은 거 아닙니까? 댁이 마음이 흥락하고 좋으면 조상님도 좋고 그런데 그 몸뚱이가 뭐 잘났다고 거기를 안 갑니까? 하하하. 그놈의 '나' 라는 거를 빼놓지 못하기 때문에 안 가고 간다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마저 빼놓고 물레방아 돌아가듯 슬근슬근 돌아가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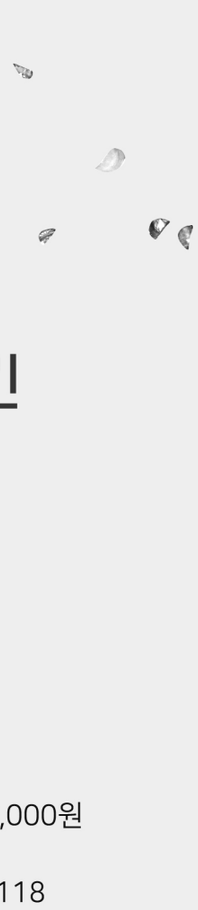
질문자2(여) 안녕하십니까? 저는요, 10년 전부터 병원에 늘 다녀도 아무 이상이 없다 하지만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요즘은 눈이 아파 가지고 영 앞의 사람이 안 보입니다. 병원에서는 시신경이 말랐다 하는데 치료를 해도 아무 효과가 없는데 스님께서 이 눈을 좀…, 빛과 광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스님 여기서는 관하는 도리를 무조건 가르칩니다. 관하는 도리를 첫째에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모든 걸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끌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운전수가 차를 몰고 다니듯이 자기 정신적인 마음이 바로 물질적인 육체를 끌고 다닙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리로 끌고 가고 저런 생각을 해서 저리로 끌고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그러한 말을 했으면 한 대로 또 들으면 듣는 대로, 보면 보는 대로 그것에 착을 두고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력된 그 자체를 부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관법을 아셔야 합니다. 그 관하는 법을 열심히 진실하게 알고 행하면, 모든 병 증세도 거기서 나온 거니깐 거기다 놓고 '거기서만이 이끌어 줄 거다.' 하는 믿음을 가지신다면 아마 그것도 멀지 않아서 해결이 날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2년 9월 20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